

파리에어쇼에서의

한국

KOREA

한국관 구성

이번 파리에어쇼에 참가한 국내 업체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한국로스트왁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한국관'을 구성해 전시회에 참가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세계 민간 항공기 시장을 주도해 온 보잉과 에어버스의 항공기를 구입하는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해 양사의 수주경쟁을 부추겼다. 국내 유일의 항공기 착륙장치 전문 생산업체인 (주)위아는 프랑스의 메시에 다우티사와 총 1백18억원 규모의 에어버스 A321에 부착될 Drag Stay Assy와 A340-600 노즈랜딩기어에 조립될 부품(67종)을 올해 9월부터 2011년까지 수출하기로 계약했다.



파리에어쇼의 한국관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6월 16일 에어쇼 현장에서 미 L-3 Integrated Systems사와 'P-3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 공동수주'에 관한 협력합의를 체결하고,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시장의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밝혔다.

L-3 Integrated Systems사의 로버트 드루(Robert W. Drewes) 사장은 "이번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최첨단 항공전자장비 시스템 종합에 대한 핵심기술과 경험을 습득함으로써 대한민국 해군이 운영하는 P-3 해상초계기를 독자적으로 성능개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는 향후 확대평양지역 국가들의 항공기 성능개량사업 공동수주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제휴의 목적을 밝혔다.

항공기 성능개량사업이란 장기간 사용한 노후 항공기의 기체구조를 개조하고 핵심 항공전자장비를 최신 개발품목으로 대체함으로써 항공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기술집약적 사업으로, 고가의 항공기를 신규로 구입하지 않고도 항공기 교체에 버금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능개량사업은 세계적 불황을 맞아 국방비 지출을 억제하고 있는 세계 군수시장에서 전력증강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18일 행사장내 프레젠테이션에서 'T-50 고등훈련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에어쇼 참가국의 군수책임자와 항공전문기자들로 성황을 이뤘으며, 각국의 공군참모총장과 항공기 제작사들로부터 T-50, KT-1 등 국산 항공기에 대한 상담문의가 잇따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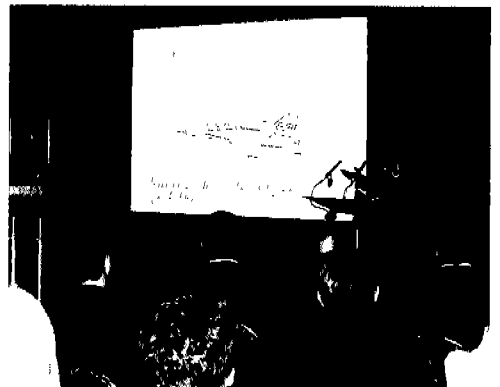
다고 한다. 이번 'T-50 사업설명회'에서는 최초의 국산 초음속 항공기인 T-50 고등훈련기의 제원과 개발과정, 초음속 돌파의 성공사례 등이 발표됐으며, 특히 T-50 고등훈련기의 시험비행을 수행한 공군 T-50 시험비행 조종사 조광제 중령이 직접 비행성능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해 참석자들의 신뢰감을 더했다.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김형보 사장(우)과 미 L-3 Integrated Systems사의 로버트 드루 사장이 대한민국 해군의 P-3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 수주를 위한 공동 협력합의를 교환하고 있다.



▶ 행사장내 프레젠테이션에서 개최된 T-50 고등훈련기 사업설명회에서 공군 T-50 시험비행 조종사인 조광제 중령이 직접 비행성능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제45회 파리에어쇼에 참가하고 있는 T-50 고등훈련기

실제로 에어쇼 기간동안 필리핀과 스페인, 베네수엘라 등 동남아와 유럽, 중동과 중남미 국가의 국방부 및 공군 책임자들과 40여 차례의 수출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이스라엘의 IAI, 영국의 Smiths Aerospace, 미국의 L-3 COM 등의 항공관련 기업과 항공기 수출에 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 최첨단 항공기 17대 도입

대한항공은 이번 파리에어쇼에서 에어버스사와 A380 8대, 보잉사와 B777 7대 및 B747-400ERF 2대 등 모두 17대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는 대한항공이 2010년 세계 10대 항공사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마련한 장기 항공기 도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 투자 활성화 및 대미 대 EU 통상관계 개선 등 정부 정책목표에 부응하는 한편 지속적인 안전운항 확보 및 미래 대량수송시대 도래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대한항공은 에어버스가 오는 2006년 선보일 계획으로 개발중인 초대형 차세대 항공기 A380을 오는 2007년말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최신의 엄격한 인증자격요건에 따라 생산되고 있는 A380은 555인승으로 최첨단의 선진기술을 갖추어 기존의 대형 항공기보다 15~20% 정도의 운용비 절감이 가능하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은 "이번 A380의 구매는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최고의 항공중심지로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일맥상통하며 아시아의 선두 항공사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대한항공의 장기적인 항공기 운영계획전략의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이번 결정으로 에어버스의 A380 프로그램에는 총 11개사가 참가하게 되었으며 A380의 총수주량은 129대에 달한다고 한다. 이외에도 대한항공은 에어버스에 대형 항공기인 A300 32대와 A330 19대를 주문해 놓은 상태이다.

보잉사의 B777 항공기는 장거리 노선에서 경제성이 검증된 기종으로 대한항공은 보유중인 B747-400 항공기를 2004년 이후 단계적으로 B777로 대체함으로써 원가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B777기의 도입결정은 대한항공이 2010년 세계 10대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한 장기 항공기 도입계획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6월 13일에는 대한항공이 보잉사로부터 747-400ERF(항속

거리 연장형) 화물수송기를 인도받았다. 이 비행기는 대한항공이 수주한 세 대의 747-400ERF 중 첫번째 수송기로 나머지 두 대는 2003년 하반기와 2004년 상반기에 대한항공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한다. 대한항공의 화물운송은 지난 수 십년간 세계 최대의 항공화물업체로 발돋움 하였으며 현재 전세계 31개국 도시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747-400ERF는 최고 412,770kg의 화물적재능력과 9,200km의 비행거리를 기록하는 세계 최고의 신형 화물수송기로서 대한항공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747-400보다 거리는 982km, 적재능력은 9,980kg이 늘어난 항속거리 연장형이다. 또한 최대이륙중량은 87만파운드에서 91만파운드로 4만파운드가 증가되었으며, 엔진의 추력도 5만6,650파운드에서 6만3,300파운드로 엔진당 6,650파운드가 늘어났다. 이로써 현재 B747-400F로 인천-로스앤젤레스 노선을 운항할 경우 미국 앵커리지를 경유해 13시간 30분이 소요되었으나 B747-400ERF는 직항이 가능해 2시간 30분이 줄어든 11시간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

